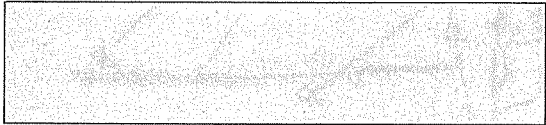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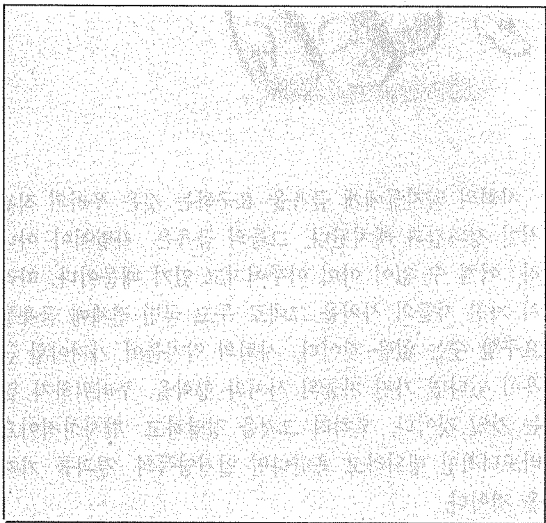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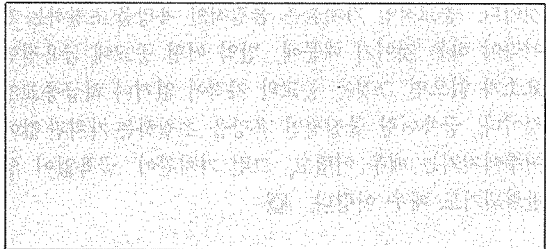
# OPEC의 原油需給 및 價格문제



- 大韓石油協會 調査課 -



〈本稿는 86年 2月20日 런던에서 개최된 英國石油協會세미나에서 Royal Dutch/Shell그룹 專務인 P·F·홈즈氏가 講演한 내용이다. - 編輯者註〉



## 1. OPEC의 多樣性

中東에서 오랜동안 石油部門에 종사했던 나는 OPEC에 대해 3가지 側面을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OPEC의 구성과 회원국의 多樣性 둘째, OPEC의 최근동향 및 世界석유산업에 대한 나의 견해, 셋째는 앞으로 일어날 사태등이다.

OPEC13國은 1981년~85년에 걸쳐 수요감퇴 및 가격 하락에 일치단결하여 行動토록 힘썼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경제적 利點이 있음에 틀림 없지만 각 회원국의 多樣성을 생각해 보면, OPEC가 85년말에 이르기 까지 一致協力하여 대처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그들의 多樣성으로서는, 우선 지리적인 면을 들 수 있다. 2 개국은 南美, 하나는 極東, 둘은 西아프리카, 또 둘은 北아프리카에 있으며, 이들 7 個國은 OPEC의 中核인 페르시아灣岸 6 개국(GCC)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제도도 多樣하다. 革命政權이 있는가 하면 옛적부터의 君主國도 있다.

인구도 多樣하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1億6,000萬명, 나이지리아는 1億, 이 두나라가 가장 많은 반면에 페르시아灣 남쪽끝의 가맹국은 1,000人單位도 있다. 이처럼 人口差가 크기 때문에 石油收入에 의한 1인당 國民소득도 差가 크다. 인도네시아의 石油로부터의 1인당 연간 소득은 약 60달러이지만 페르시아灣諸國은 1萬달러 정도이다.

가맹국간의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OPEC는 79~80년에 가장 강력했던 時點으로부터 그후 85년말에 이르러 그 영향력 및 結束力이 약화되기까지 그동안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여 왔던 셈이다. 또 그러한 변화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은 심한 저항을 보여왔다.

OPEC가 산유량규제에 의한 油價管理조치를 결정한 것은 82년 3월 빈 總會에서 비롯하였다. 여기서 생산上限을 1,750萬b/d로 설정했으나, 회원국별 할당량을 정하지 못해 효과가 발휘되지 못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정보 시스템과 모니터手法이 개발되어 있지도 않았다.

國別 産油할당량을 결정한 것은 다음해인 83년 3월, 런던에서 개최된 마라톤(長期)會議이다. 회원국간의 이해가 多樣하게 노출·상충되었으므로 할당량결정주스는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그 합의에 달하기까지 너무 지연되었으므로 OPEC는 우선 스파트시장과 同調시키기 위해 아라비안 라이트 원유가격을 배럴당 5달러 이하 하

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수년간의 현상을 보아 알 수 있듯이, OPEC는 原油需給밸런스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政府系 原油판매회사(영국石油公社도 포함)가 시세에 맞추어 油價를 수정하는 것을 싫어했으므로, 輸入國들이 그동안 長期間契約하던 것을 삼가고 단기간 또는 스파트를 選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OPEC회원국이 희망을 갖고 이 사태에 대처할 수 있었던 점은 그러한 苦境이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이다. 油價가 인하되면 경제전망이 好轉되고 석유소비가 늘어 시장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OPEC각국은 생각했던 것이다. 석유위기 이후 축적되었던 과도한 석유在庫는 감소하여 84년 한때에 - 특히 영국 石炭勞組파업의 영향이 加重되어-OPEC의 바램은 실현될 수 있는듯이 보이기도 했다. 사실, 84년 석유수요는 전년보다 100萬b/d나 증대하였다.

그러나 사태는 OPEC의 바램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84年末까지 위기가 해소되어 원유輸出入이 증대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OPEC은 產油上限을 더욱 줄여 1,600萬b/d까지 낮추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OPEC의 기대처럼 시장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는 非OPEC측 산유량이 계속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非OPEC 산유량은 83년에서 34년에 걸쳐 150萬b/d가 늘어나 약 2,500萬b/d에 달했다(1979년에는 2,000萬b/d임). 79~84년에 非OPEC 原油공급량이 500萬b/d나 많아진 반면, 동기간에 수요는 600萬b/d나 감소하였으며 東歐공산권에서의 流入도 증대되었으므로 OPEC의 市場몹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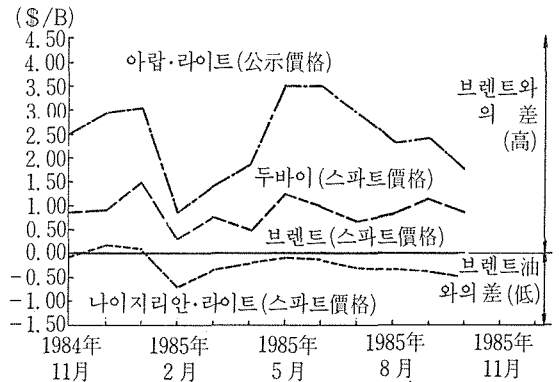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85年末경에는 일부 OPEC 가맹국이 국내경제악화로 말미암아 減産정책을 잡아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하루 빨리 逆境을 벗어나려던 OPEC의 꿈은 無散되었다.

여기서 OPEC의 逆境/苦生相을 잠깐 살펴보자. 나이지리아의 경우 총外貨收入의 九割을 차지하는 石油收入은 78年 90億달러에서 79年은 170億달러, 80年에는 250億달러로 急增했다. 그러나 3년후에는 100億달러로 격감했다. 파킨슨의 第2法則-소득이 늘면 지출도 늘어난다-은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90億달러 → 170億달러 → 250億달러로 늘어났으니 다음은 300億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싶은 법인데, 그것이 100億달러로 줄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1985년에 이르러서는 OPEC회원국이 잇따라 苦境을 맞아서, 油價 및 產油量協定을 지키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85년에는 10월까지 4번이나 OPEC회의가 열렸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특히 이라크~얀부(사우디의 페르시아灣岸 항구) 사이에 새로 開設된 파이프 라인을 통해 이라크의 原油수출량이 50萬b/d 증대될 가능성이 짙어졌으므로 OPEC은 새로운 國別할당량을 相互合意하기가 곤란했다. 그리고 더욱 증대한 일은 사우디가 더이상 생산조정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公言한 것이다. 12月の OPEC총회는 石油需要 滯留 및 非OPEC 產油量 증대라는 상황에서 개최되었으므로 OPEC으로서는 매우 가혹한 것이었다.

이 문제의 최대원인이 非OPEC增産에 있다고 OPEC側이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12月총회의 聲明骨子는 「OPEC가맹국 경제개발에 필요한 收入確保를 위해 適正세어를 확보, 이를 방어한다」는 것이었는 바, 이는 非OPEC산유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었다.

(그림 1) 北西유럽의 精油社에 대한 中東原油의 相對價格추이



(表 1) 世界의 原油需給밸런스 (단위: 100萬b/d)

	1979	1981	1983	1985
需要量	52.1	47.3	45.2	45.9
OPEC生産量				
原油	30.9	22.5	17.3	16.0
NGL	0.8	1.1	1.2	1.3
非OPEC生産量	20.1	21.3	23.5	25.8
共産圈으로부터의 純輸入量	1.4	1.7	2.2	2.1
在庫減少 / (增加)	(1.1)	0.7	1.0	0.7

주: 공산권除外

## 2. 販賣 確保 競爭

그러면, OPEC의 對處方案은 무엇인가? 첫째문제는 국제시장에서 OPEC産원유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圖 1)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中東원유는 때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매우 저하되었다. 경쟁력 회복을 위해 취한 방법의 하나는 85년 하반기에 시작한 「Realization deal」(\*최근에는 이를 Netback去來라 함)이다. 이 방법의 특징은 그것에 의해 업계의 結束을 높여 期間去來계약을 회복시키려는 의도이다.

Realization deal에서, 原油가격은 다음과 같다. 船積된 40~50日後의 公表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제품市價의 加重平均値를 산정한 것이 原油價値이며, 그것에서 輸送費와 精製費를 差減한 것이 그 原油의 수출가격이 되는 것이다. 정유회사로서는 精製費중에 마진을 넣을 수 있다. 즉 이 방식에서는 원유生産段階에 있는 마진의 일부를 정유업자에게 提供함으로써 一定期間에 걸친 매매계약을 맺는다는 메리트가 있으므로, 부분적으로는 分裂한 석유업계의 결속을 修復하는 셈이 된다.

다음, OPEC의 市場확보 추진은 어떠한가? 여기서 注目하고 싶은 것은 非OPEC産油國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대부분 自國內部에서 소비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非OPEC산유국은 OPEC의 參入(\*OPEC原油의 流入)에 강한 저항을 보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리적조건도 있으나 國內석유산업 보호라는 壓力도 있다. 그러나 原油 총생산량이 아니라 輸出量으로 보면 시각이 다르다.

非OPEC側의 원유輸出量 600萬b/d중 약 1/4은 EEC城內의 거래이고 1/5은 北美(멕시코 포함)城內의 거래이므로 그 나머지 약 330萬b/d가 OPEC原油수출량 1,390萬b/d와 경쟁하는 것이다. 더우기 非OPEC側의 수출량 증대는 近年의 投資결과로서 많은 나라가 수출하는 것이다. 英國은 멕시코輸出量에 다음가는 第2位이며 第3位는 노르웨이이다. 非OPEC産油量이 증대한 이유는 여러가지 있으나 그들 어느나라도 현재의 증대된 産油量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안정공급, 外貨획득, 경제개발, 고용촉진, 原油매장지의 확보, 利益增大등이 주요 이유이다.

한편, 분석가들은 자기네가 사용하는 專門用語의 催眠術에 빠지는 수가 있다. 「非OPEC」이란 OPEC과 對立하는 것으로, 양쪽 실태는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非OPEC을 형성하고 있는 원유生産者는 각각 국적이 다르고, 國營會社와 民間企業, 대규모회사와 中小規模 또는 個人규모도 있는 등 多種多様하다. 이것이 방지되어 있으므로 시장환경은 협조보다 경쟁을 重視한다. 사상적, 정치적, 法的장해가 있으며 생산자들이 협력하여 행동하기는 곤란하다. 非OPEC의 원유輸出業者가 협조하여 스스로 市場일부를 放棄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도 OPEC側은 非OPEC에서의 장벽과 그 복잡성을 過小評價하고 있는 것이다.

〈表 2〉 原油의 국제去來量

(단위 : 100萬b/d)

	1979		1985	
	거래량	%	거래량	%
OPEC	29.2	88	13.9	62
非OPEC	2.3	7	6.0	27
共產圈	1.6	5	2.6	11
計	33.1	100	22.5	100

## 3. 앞으로의 展望

1986년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수요는 여전히 현상 유지일 것이며, 在庫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非OPEC原油의 공급량은 아마도 100萬b/d정도 증가할 것이다. 노르웨이, 이집트, 오만, 말레이시아, 濠洲 등의 공급량은 늘어나겠지만 그 폭이 10萬b/d 이상 되는 곳은 없을 것이다. 英國의 산유량은 현상유지될 듯 하다.

以上の 예상대로 非OPEC원유의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OPEC産 원유수요는 연간 약 1,750萬b/d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부항을 經由하는 이라크原油가 증가하고 사우디는 85년 여름의 낮았던 産油수준의 유지를 拒否하게 되면 OPEC가 적어도 1,750萬b/d는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86년은 이론적으로 약 200萬b/d 가까운 공급과잉이 될 것이며, 이는 물론 油價弱勢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經濟專門家들은 油價하락이 세계전체로서 좋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원유가격이 내려가면 에너지·코스트가 낮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어느정도로 낮아지는 것이 세계경제에 좋을 것이며, 油價안정은 언제 실현될 것인가이다.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개관하면, 브라질처럼 원유輸入量이 많은 나라는 低價格이 플러스요인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원유輸出量이 많은 나라 가운데는 石油收入이 外貨획득총액의 9割 이상이나 차지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다. 油價가 일정기간 20\$/b이하로 머물면 멕시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은 借入金을 더욱 늘려나가야만 한다. 그 금액이 크고 또한 어느 곳에서 빌려올 것인가도 문제이다. 지난 번 두 차례의 石油危機時에는 국제금융 시스템을 통해 OPEC의 剩餘資金이 원유輸入國으로 還流되었으나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銀行業界도 지금은 苦境에 처해있다. 특히 美國쪽이 그러하다. 또한 美國銀行에 의존하고 있는 農業부문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産業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油價가 10\$/b대에 머물면 銀行에 대한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막대한 借入金을 안고 있는 小企業은 이러한 低價格에 버티어 갈 수 없게 된다.

이처럼, 油價가 폭락할 경우 이익을 얻는 나라와 기업이 많을 것은 확실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效果에 의문이 간다. 이는 마치 새로운 藥品과 같아서 그 藥으로 좋아지는 환자가 있는 한편 服用量이 잘못되면 많은 환자가 惡質의 副作用을 앓게 되는 것이다. 非OPEC산유국으로서는 油價폭락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兩面을 받게 된다. 그래서 油價폭락이 英國에 플러스效果를 준다는 의견에 贊成치 않는 사람들도 많다.

OPEC側으로서는 油價하락이 경제규모축소를 뜻하게 되는데 회원국중에는 그러한 축소가 不可能視 되는 나라도 있다. 原油價가 배럴당 1달러 떨어지면 OPEC13國 전체의 한달收入이 4億달러나 減少한다.

또하나 石油業界가 생각해야만 할 문제는, 最終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油價下落을 예상하는가 이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財政赤字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석유제품價格에 대한 增稅(\*또는 다른 형태의 석유관련 增稅)를 稅收 확보 내지 확대의 方便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지난번 油價폭등을 계기로 형성된 에너지절약 풍토를 더욱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이용될 것이다. 물론 OPEC側에서 보자면 OPEC이 바라는 石油需要 伸張을 저해하는 큰 문제이다.

장기적전망은 非OPEC產油량이 현상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 지나면 既發見된 세계 原油매장량의 2/3를 갖고 있는 中東이 또다시 세계의 주요 공급자로 될 것이 틀림없다.

論理的으로 생각하면 油價가 단기적으로는 하락추세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통상 논리적일 수 만은 없다. 原油價 하락이 계속되면 곤란한 경우도 많으므로 하락추세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가능성이 많다. 지금 세계는 특히 OPEC諸國은 단계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참아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욱 치료하기 어려운 外傷을 입든가의 兩者擇一에 直面해 있는 것이다. □

(日本 旬刊 石油政策 '86年 5月25日字)

호국으로 이룬번영

보훈으로 보답하자